



진 대 제 정보통신부 장관

요즘 정부부서 가운데 가장 바빠면서 가장 벅찬 업무를 하는 곳이 정보통신부라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부서가 얼마 전 국민들에 “앞으로 10년간 먹고 살거리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당당히 밝히면서 죽기살기로 뛰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 경제는 계속 나빠진다고 하는데 과연 이 부서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뭘 믿길래 그러는지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정통부의 수장이며 나라경제의 조타수임을 자타가 인정하는 진대제 장관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봤다. 마침 진 장관이 여러 국제행사에 몰려 너무 바쁜 관계로 인터뷰는 이메일로 이뤄졌다. <편집자 주>

글_곽재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본지 편집위원

▶ 정보통신부는 ‘국민소득 2만 달러로 가는 길’이라는 슬로건 아래 ‘IT 839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IT 839 전략”은 한마디로 IT산업의 가치사슬에 기반한 국가 발전전략입니다. IT산업은 통신, 방송 등에서의 서비스가 먼저 표준화되고 그 다음으로 망 구축과 기기, 부품 개발이 뒤따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서비스, 인프라, 신성장 동력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우수한 원천기술, 자금시장, 인력 및 기술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민간중심의 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시장이 협소하고, R&D자금이 미흡할뿐 아니라 핵심 기술인력도 부족해 민간위주의 산업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역할분담해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 새로운 IT서비스를 조기 도입하고 제품화하여, 새로운 분야의 IT산업을 선점하는 발전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는 가치사슬의 각 단계별로 사업자 허가, 서비스 방식, 주파수 분배, 표준화, 초기시장 창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은 서비스 준비, 기술개발 투자, 생산

‘IT’는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여는 개척자

“10년 후 먹고 살거리 책임질 것”

기반 구축, 해외시장 개척 및 재투자를 담당하게 됩니다. IT 839 전략이 잘 추진되면 IT산업은 올해 생산 240조 원, 수출 7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오는 2007년에는 생산 380조 원, 수출 1천100억 달러를 달성하여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가시적인 경제성고를 낼 기술은 어떤 것이며 IT 839가 실현되면 기술,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로 전망하시는지, 한편 휴대폰의 예에서도 그렇지만 IT는 수출이 잘 될수록 수입도 더 크게 늘어나는 게 상식일 만큼 우리의 원천기술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IT 839 전략’의 모든 품목은 우리 뿐만 아니라 경쟁국들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앞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우리가 현재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분야와 향후 선점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대략 4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WiBro(휴대인터넷)와 W-CDMA 같은 차세대 이동통신입니다. 이미 국내 이동전화 단말기 산업은 제품 디자인, 생산성, 첨단 기술적용 등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천기술과 핵심부품의 국산화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텔레메틱스를 들 수 있습니다. 높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률, 폭 넓은 인터넷 이용률 및 높은 자동차 보급률로 이 서비스는 아주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홈네트워크도 가능성이 큼니다. 백색가전에서의 국제경쟁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끝으로 디지털 TV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잘 갖추어진 인프

라(내년에 디지털 지상파 TV의 전국망이 완성)와 최근 한류 열풍에서 보듯 풍부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LCD, PDP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경쟁력과 기존 가전시장에서의 이미지를 활용하면 디지털TV 시장 선점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IT산업은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확대로 연결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기와 콘텐츠산업 등이 동반 발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IT 839 전략’은 투자활성화는 물론, 5~10년 후의 먹거리를 다변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천기술력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업적 성과에 집중하는 기술개발로는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가 곤란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제품개발에 치중하는 민간의 경우 장기적인 투자와 불확실성이 있는 원천기술개발에 힘을 쏟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정통부에서는 2년 전부터 4세대 이동통신 등 위험성은 크지만 향후 고수익이 보장되는 5개 분야를 대형국책과제로 선정하여 원천기술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대형국책과제: 4세대 이동통신, 초고속 광가입자망(FTTH), 지능형 통합정보방송(SmaTV), 차세대 인터넷서버, 고성능 네트워크 정보보호 등).

또 지난해에는 지능형 로봇 등 9대 IT신성장동력 품목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외 R&D센터 유치 등을 통해 세계 일류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여 국내에서 뒤처진 분야의 원천기술을 공동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중입니다.

앞으로,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해당분야의 지재권 확보전략을 의무화하고, 국책연구소에서 원천기술개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④ IT산업의 정부지원이 자칫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정통부는 IT 산업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하여 지난 4월 통상법률전문가로 통상 대응팀을 구성하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WIPI, WiBro서비스 표준정책 등이 심각한 통상마찰로 비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바 있으며, 현재 IT분야에 통상이슈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통부는 통상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IT 정책의 추진 단계별로 WTO 규범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④ 결국 IT의 성패도 인재육성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 있는지, 나아가 새로운 이공계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으신지, 아니면 이공계를 신바람 내게 할 이른바 '진대제 처방'을 기대해도 되는지요.

IT의 급속한 발전으로 IT인력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는데 이런 현장의 모습이 교육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도 교과과정 개편 등에 상당한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므로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적 불일치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통부는 작년에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수요·공급 관리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SCM(Supply Chain Management, 수요만족을 위해 모든 공급활동을 최적화) 모델을 IT인력양성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임베디드 SW, 시스템 통합(SI), 멀티미디어 및 게임 등 5개 SW 분야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내년부터는 하드웨어 분야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 IT산업을 선도하고 IT신성장동력의추진을 뒷받침해줄 고급 IT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대학 IT연구센터 육성(올 예산 324억 원)과 더불어 해외 우수 기업 및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이공계 교육을 위해서는 대학에서 최종 수요자를 학생이 아닌 기업체로 보고 교육내용을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이 입사를 선호하는 대기업에서 사원 선발시 구체적인 업무 분류(job description)를 하여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④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경제, 사회적 빈부격차로 인한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데 그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요.

정부는 계층별,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 정보격차 완화를 위해 그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1)하고, 범정부적으로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2001~2005)'을 수립하는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0~2003년말까지 저소득층, 주부, 노인, 장애인 등 약 2천 129만 명에 정보화교육을 실시했는가 하면, 1997~2003년까지 장애인,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중고 PC 4만1천906대를 보급했습니다. 또 2003년까지 100가구 이상 거주지역에 초고속망을 구축(농어촌지역 가구대비 설치율: 93%)하고 읍, 면, 동 단 위당 1개 이상의 정보이용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성별격차가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 격차는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향후 정보격차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장노년층, 농어민,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 500만 명을 대상으로 취업관련 교육 등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현재 초고속망이 보급되지 않고 있는 전국 24만 가구를 대상으로 2007년까지 초고속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④ 국내 이동통신 사업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느낌인데, 중국 등 해외시장 공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제조업의 수출은 물론 서비스 수출까지 생각해야 할 시점이 아닌지요.

최근 중국이동통신 업체들의 급성장으로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어 우리 나라 중견 및 중소 휴대폰 업체들의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우리 IT수출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반도체 중심의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어서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IT서비스 등 고부가가치의 IT산업 수출은 미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동통신 등 기존의 IT수출 주력품목은 고부가가치의 상품개발을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초고속인터넷, 홈네트워

킹, 온라인 게임, 전자정부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유망 IT수출 품목과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출품목을 점차 다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과 미국, 일본, 대만 등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의 수출지역도 다변화할 수 있도록 BRICs 등 해외진출 전략 국가에 민관합동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우리 업체의 수출과 해외 IT서비스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IT수출지원체계를 좀더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각국에 나가있는 iPark를 통해 해외 마케팅 인력양성, 수출상담 및 컨설팅 사업 등을 확대하여 우리 중소IT기업의 해외 진출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분야에선 국제표준이 굉장히 중요하데, 이런 표준화의 전쟁에서 우리 어느 정도 대처하고 있는 지요.

IT표준이 시장 선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각되어 감에 따라, 세계 각국은 표준기술의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동전화 단말기의 경우 국내 IT가 해당 분야의 국제 표준화 활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동통신단말기의 경우 생산과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38%나 되고, 전체 IT산업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에 이릅니다. 이런 실력을 바탕으로 3세대 이동통신기술(3G 또는 IMT-2000)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제표준화를 추진중입니다. 또, 휴대인터넷, DMB(이동멀티미디어 방송), RFID(전자태그) 등 신규 서비스와 인프라는 표준과 밀접하게 연계시켜 추진하고 있습니다.

▶ IT를 BT, NT, CT 등과 같은 다른 기술분야 이른바 'T브라더스'들과 연계시키는 노력, 즉,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 정부내에서 아니면 연구자, 기술자들이





리 어느 정도로 정보교류 등 교감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들이 융합되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IT, BT, NT, CT 같은 이종 기술간의 결합도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통부에서는 이같은 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IT-BT, IT-NT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는 IT 컨버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획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IT와 신기술을 연계시키려는 범부처간의 협력노력도 중점적으로 추진중입니다. 실제로 CT의 경우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솔루션' 분야에 있어 문화관광부와 협력중이며 NT의 경우 여러 부처가 지난 5월 '나노 종합시행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바 있습니다.

🔴 요즘 가장 장관님을 바쁘게 만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지금 가장 하고 싶으신 일은 무엇인지요.

장관으로 부임한 지 1년 반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기업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9월초에 부산에서 열렸던 'TTU텔레콤 아시아 2004' 행사 때, 방한한 외국 IT장관과 우수 기업 CEO를 상대로 'TT외교'를 벌이느라 특히 눈코 뜰새 없었습니다.

이제 올해 남은 3개월 동안에는 연초에 세웠던 업무 목표나 주요 현안들을 하나하나 매듭지어 나가야 하고 정기 국회도 열리기 때문에, 더욱 바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도 강조해 말씀드린 'IT 839 전략'을 비롯한 우리 부의 주요 현안들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하여 IT가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는 일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과학기술계 여러분들은 물론 '과학과 기술'을 보시는 독자들에게도 끊임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